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전영한**

정책도구연구는 정책도구선택에 관한 인과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보다 문제해결에 성공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식활동이다. 이 글은 기존 정책도구연구의 특징을 고찰한 후에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의 정책도구연구의 특징을 획일적 접근, 개별도구중심 분석, 기술적, 합리적 모형, 계층제적 접근, 설계지향적 성격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서 각각 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첫째, 정책도구가 갖는 내재적 특성을 강조한 획일적 접근은 도구와 맥락과의 상호정합성을 강조하는 상황적 접근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개별도구중심 분석은 복수의 도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구조합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고, 셋째,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합리적 모형은 정치적 이해관계, 문화적, 제도적 특성 등이 도구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변화해야 하며, 넷째, 명령과 통제에 입각한 계층제적 접근은 민간의 제3자와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전통적인 설계지향적 관점은 정부의 조직적, 제도적 역할이 도구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관리연구와 정책설계연구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논점은 앞으로의 정책도구연구는 분석적이고 처방적인 도구원리의 발견에 집중하였던 종래 연구의 편협성을 탈피하여 상이한 정부활동의 도구들 중에서 특정한 도구를 선택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인과지식의 축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정책도구, 도구주의, 상황론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론, 정책수단론 등이다(yhchun@yonsei.ac.kr).

I. 서론

정책도구(policy tools or instruments)에 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Salamon, 2002; Peters and Van Nispen, 1998; Eliadis et al., 2005). 인류가 정부를 창조한 이후 정책도구는 언제나 정부에 의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 변한 것이 있다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미치는 정책도구의 독립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다.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주어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넓은 선택의 가능성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축복인 동시에 재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도구에 관한 우리의 인과 지식이 도구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만큼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Peters, 2005; Van Nispen and Ringeling, 1998).

실제로 정책도구연구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도우려는 처방적 동기에서 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정책도구가 다른 정책도구에 비해 더 우월한 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정책도구가 다른 정책도구에 비하여 특정 정책문제해결에 더 성공적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결정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이고 처방적인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정책도구의 선택과 선택된 정책도구들 사이의 성과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과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책도구연구는 정책도구선택에 관한 인과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보다 문제해결에 성공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몇 십년간 진행되어 온 기존 정책도구연구의 특징을 고찰한 후에 향후 연구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II. 정책도구연구 개관

지난 수십년간 많은 학자들이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or tools)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려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책도구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도구적 특성

(instrumentalities)을 강조하고 있고 기법(techniques), 방법(methods), 장치(devices), 기술(technologies) 등으로 그 구성개념(constructs)을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1에서 보듯이 정책도구의 개념정의 자체에는 학자들간에 큰 견해차이가 없고 뚜렷한 쟁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도구 개념정의는 정책도구와 정책(public policies), 프로그램(policy programs), 공공관리기법(techniques of public management) 등 유사개념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도구의 유형분류상의 어려움도 야기하고 있다.

많은 정책도구분석가들은 정책도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효시는 Dahl and Lindblom(1953)에 의해 제시된 정부가 사용하는 사회경제적 수단들에 대한 분류라고 본다. 이후 정책도구연구는 정책학이나 행정학에서 흔히 도구주의적 접근(instrumentalistic approach)이라고 불려왔다 (Salamon and Lund, 1989). 도구주의적 접근을 택한 연구자들은 정책도구를 정책설계(policy design)의 기본요소로 이해한다. 정책설계에 관한 지적 탐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전통으로 구별된다(Allio, Dobek, and Weimer, 1998). 하나는 경제학적 전통으로서 Pigou와 같이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책도구를 찾고자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1960년대의 Kirschen(1964) 그리고 최근 가장 인기있는 정책분석 텍스트중의 하나인 Weimer and Vining(1998)에 의해 대표된다. 또 다른 전통은 정책학적 전통으로서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설계시 적절한 정책도구의 선택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Bardach, 1977; Elmore, 1987; Doern and Phidd, 1992; Hood, 1986; Schneider and Ingram, 1997).

<표 1> 정책도구의 개념정의

학자	정의
Vedung (1998)	정부가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활용하는 기법(techniques)
Howlett and Ramesh (2003)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가능한 실제 수단 및 장치(actual means or devices)
Doern and Phidd (1992)	정책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
Salamon (2002)	공적 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 집합적 행동이 구조화되는 판별가능한 방법 (identifiable method)
Schneider and Ingram (1997)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설계의 요소들(elements in policy design)

이러한 도구주의적 관점의 두 전통은 각각 경제학과 정치학으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았지만 양자 모두 정책도구의 선택과 활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경제학적 전통의 정책도구연구자들은 시장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의 효과에 주로 관심을 보였는데, Howlett(2005)은 이들이 대부분의 행정수단을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도구선택을 시장적 선택과 반시장적 선택으로 양분하는 과잉단순화의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 종래의 시장과 정부(market vs. government)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하기 그지없는 정책도구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정책도구의 다차원성을 활용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가능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정책도구연구의 특징을 (1) 획일적 접근(one-size-fits-all approach), (2) 개별도구중심 분석(individual tool analysis), (3) 기술적, 합리적 모형(technocratic and rational model), (4) 계층제적 접근(hierarchical approach), (5) 설계지향적(design-oriented) 성격 등으로 요약하여 논의하겠다.

1. 획일적(one-size-fits-all) 접근

Peters and Van Nispen(1998)은 기존의 경제학적 정책도구연구가 정책도구의 선택을 둘러싼 상황적 특수성(contingencies)을 과소평가하여 상황과 무관한 만병통치식 도구선택을 처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상황에 관계없이 특정 정책도구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렇게 개별도구의 도구특성(tool attributes)을 중심으로 도구내재적인 도구별 비교성과를 따지는 접근법은 정책도구가 선택되고 적용되는 다양한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Linder and Peters, 1998; Bagchus, 1998). 특히, Woodside(1998)는 국가간 맥락(national context)의 차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정 국가에서 성공적이었던 정책도구가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달리하는 국가에 적용될 경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도구분석에 있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진 학파가 존재하는 것은 정책도구를 둘러싼 국가적 맥락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책도구연구

구는 국가적 맥락(national context)과 같은 새로운 상황변수의 발굴을 통해 종래의 도구특성에만 집착하였던 편협한 분석틀에서 벗어나 정책도구의 기능과 성과에 관한 풍부한 맥락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2. 개별도구중심 분석

고전적인 정책도구연구에서는 개별 정책도구가 갖는 특성이 정책과정의 특성과 성과의 차이를 결정짓는다고 믿어왔다. Salamon and Lund(1989)는 이러한 시각을 “정부활동에서 각기 다른 도구는 자기만의 고유한 역학관계와 정치경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는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하기보다 복수의 다양한 도구를 동시에 사용한다. 따라서 종래의 도구분석가들이 던져왔던 “왜 정책결정자들은 특정 정책도구를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정책결정자들은 특정 정책도구의 결합(tool mix)을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현실에 적합한 연구질문이다. 개별 정책도구(individual tool)에 국한되었던 분석의 대상을 정책도구의 혼합적 사용으로 확장하면 상호보완적 정책도구조합(tool packaging)을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구결합(instrument mix)은 병렬적(parallel)으로 혹은 순차적(serial)으로 일어날 수 있다. 병렬적 혼합은 여러 정책도구를 한 가지 정책목적을 위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흡연억제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 흡연금지, 니코틴 등 인체유해성분 표시의무의 부과, 담배가격인상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한편 순차적 혼합은 정책효과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정책대상집단과 정책도구의 성격이 순차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담배에 섞인 인체유해성분의 표시의무부과는 담배제조업자에게는 행위의 제약을 주는 규제(regulation)에 해당하지만 실제 흡연가에게는 정보제공(providing information)이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도구결합은 실제로 사용되는 정책도구와 분석적으로 의미있는 정책도구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정책도구에 관한 이론적 유형분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 기술적, 합리적 정책결정 (technocratic, rational policy-making) 시각

수단(instrument) 혹은 도구(tool)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기존의 정책도구연구는 정책결정을 수단-목적의 연계라는 기술적,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도구를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망치, 펜치, 드라이버와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을 높일 수는 있으나 정책도구에 대한 오도된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Van Nispen and Ringeling, 1998). 이러한 비유는 정책과정에 대한 기계적 접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도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고, 효과성만이 정책도구평가의 기준이라는 오해를 심어준다.

기존의 많은 정책도구연구자들은 도구선택을 최적화 설계의 문제로 파악해왔다. 즉,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정책도구의 선택이 최적화의 문제라면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정책도구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정부들은 다른 정책도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정책목표와 정책도구사이에 도구적 합리성 이외의 다른 선택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ingeling, 2005). 정책도구의 선택을 기술적,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책목표의 모호성이다 (Chun and Rainey, 2005).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 정책도구의 선택은 단순한 극대화의 문제가 어렵고 정책도구와 목표간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며 정책실패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정책도구의 선택이 잘 정의된 문제와 잘 정의된 해결책을 짚짓는 단순한 기계적 과정이 아님을 알려준다 (Van Nispen and Ringeling, 1998). 도구적 합리성 외에 정책도구는 과거의 선택, 유행, 정치적 이해관계, 문화적 이유 아니면 단순한 관성(inertia)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규제완화와 민간화는 전세계적인 유행이다. 이러한 정책선택이 과연 모든 국가에서 최적화를 의미하는지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정책도구선택에 있어서 국가적 맥락과 같은 상황변수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부각된다.

5. 계층제적 접근(hierarchical approach)

종래의 정책도구연구는 계층제에 의해 조직화된 정부에 의한 정책도구활용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점점 더 현대정부들은 민간의 제3자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alamon(2002)은 이러한 경향을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라고 부르며 제3자(third parties)를 통한 이러한 방식이 현대정부의 정책도구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Eliadis et al. (2005)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도구선택의 변화는 종래의 정책도구연구가 거버넌스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수 행위자간의 네트워크(networks)를 중심으로 공공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이용가능한 정책도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흔히 간주된다 (Salamon, 2002).

Howlett (2005), Bressers and O'Toole (2005)과 같은 연구자들은 비정부행위자들에 의해 운용되는 새로운 정책도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명령과 통제와 같은 전통적인 "수직적 도구(vertical tools)"보다는 협상과 타협, 파트너쉽형성과 같은 새로운 "수평적 도구(horizontal tools)"로의 전환과정이 현대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처방함에 있어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그 변화가 가져올 효과도 각 국가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설계지향적(design-oriented) 성격

전통적인 정책도구분석가들의 관심은 흔히 후생경제학적 전통에 따라 적절한 정부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경쟁적 정책수요들간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도구의 설계(design) 못지않게 정책도구의 성과를 결정짓는 것은 정책도구의 "관리(management)"이다 (Dohanue and Zeckhauser, 2006). 많은 경제학적 분석가들은 계약(contracting-out)과 같은 시장친화적 정책도구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효율성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계약에 관한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연구들은 정책도구들이 채택만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자기집행적(self-implementing)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Kettl, 1988;

1993). 아무리 시장친화적 정책도구라 하더라도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조직적인 관리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Peters (2000)는 공공관리연구와 정책도구연구가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정책도구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조직적, 제도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활동이 없이는 정책도구가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Ⅲ. 정책도구연구의 향후 과제

1980년대 이후 많은 정부들이 정책도구의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양보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고 정책도구의 선택은 이러한 경향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왔다. 흔히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고 불리는 변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책도구연구의 흐름은 획일적 접근, 개별도구분석, 기술적, 합리적 모형, 계층제적 접근, 설계지향적 성격이라는 특징들로부터 각각 상황론적 접근(contingency approach), 도구결합분석(analysis of instrument mix), 비합리모형(non-rational model), 비계층제적 접근(non-hierarchical approach), 도구관리(tool management)의 강조 등의 새로운 접근들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아야 할 변화의 흐름은 도구자체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다양한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과 도구와의 상호적합성(goodness of fit)을 강조하는 상황적 관점(contingency perspective)으로 이동이다.

이러한 상황변수(contingencies)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가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갖는 특성이다. Howlett(2005)은 정책도구의 선택은 국가별로 정책결정자들의 전통적인 정책도구선호와 선호의 발현을 제약하는 정치경제적 혹은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만약 어떤 국가가 높은 수준의 행정역량(administrative capacity)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규제나 유인도구보다는 정보도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Ringeling(2005)도 정책도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체제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맥락의 차이를 간과하는 일반적 정책도구분석(generic tool analysis)에 기초한 정책도구선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정책도구설계와 선택에 있어

서 정책결정자들은 특정한 정책도구가 성공할 것인가를 질문하기 보다 그 정책도구가 해당 국가의 정치행정체제와 적합성(fit)을 갖는지, 또 문화적, 제도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도구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Peters (2005)가 강조하는 것처럼 정책도구 자체의 특성과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레짐(governance regimes)이 갖는 특성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에 있어 행정의 역사는 정책도구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마다 정책도구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고유성은 정책도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수립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무기구매에 관한 계약(contracting out)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규제, 공기업, 양여금, 사회적 규제, 서비스계약, 거래가능한 오염권(tradable permits) 등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주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금융과 세제를 활용한 정책도구들이 외국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앵글로색슨계 국가에서 나타난 정책도구의 다양화와 비정부조직을 활용한 간접적 행정방식의 확대는 재정적 압력과 보수적 이념의 확산에 영향 받은 바 컸던 반면 동일한 시기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기업, 은행, 대학 등 권위주의시대 정부 정책집행의 손발로 간주되었던 비정부조직들이 오히려 행정으로부터 독자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회고는 정책도구연구가 비단 분석적(analytical)이고 기술적(technical)인 이른바 도구원리(instrumental doctrines)의 창출에 그 초점이 국한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정책도구연구가 풀어야할 연구문제들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comprehensive)이다. 정책도구연구의 핵심과제는 정부가 공공문제에 접근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상이한 정부활동의 도구들 중에 특정한 도구를 선택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도구연구는 공공정책에 관한 있어야 할 지식과 현존하는 지식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Allio, L., M. Dobek and D. Weimer. 1998.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Instrument Design:

- The Case of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In Peters, G. and F. van Nispen (ed.).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 Eliadis, P., M. Hill and M. Howlett. (ed.). 2005.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Bagchus, R. 1998. "The Trade-Off between Appropriateness and Fit of Policy Instruments," In Peters, G. and F. van Nispen (ed.).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 Bardach, E. 1977. *The Implementation Game*. Cambridge, Mass.: MIT Press.
- Bemelmans-Videc, M., Ray C. Ris, & Evert Vedung (ed.). 1998.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NJ. USA.
- Bressers, H. and L. O'Toole Jr. 2005. "Instrument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In a Networked Context," In Eliadis, P, M. Hill and M. Howlett. (ed.).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Chun, Y. and H. Rainey. 2005. "Goal Ambiguity In U.S.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1): 1-30.
- Donahue, J. and R. Zeckhauser. 2006.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Moran, M., M. Rein and R. Goodin (ed.).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hl, R. and C. Lindblom. 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Doern, B. and R. Phidd. 1992. *Canadian Public Policy: Ideas, Structures, Processes*. Toronto: Nelson Canada.
- Elmore, R. 1987. "Instruments and Strategy in Public Policy," *Policy Studies Review* 7(1): 164-186.
- Hood, C. 1986. *The Tools of Government*. Chatham, NJ: Chatham House.
- Howlett, M. 2005. "What Is a Policy Instrument?," " In Eliadis, P, M. Hill and M. Howlett. (ed.).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Howlett, M. and M. Ramesh. 2003. *Studying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 Press.
- Kettl, D. 1988. *Government by Proxy*. Washington DC: CQ Press.
- _____. 1993. *Sharing Powe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Kirshen, E. et al. 1964. *Economic Policy In Our Time*. Chicago: Rand McNally.
- Linder, S. and G. Peters. 1998. "The Study of Policy Instruments: Four Schools of Thought," In Peters, G. and F. van Nispen (ed.).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 Peters, G. 2005. "The Future of Instruments Research," In Eliadis, P, M. Hill and M. Howlett. (ed.).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Peters, G. and Frans van Nispen (ed.). 1998.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 Ringeling, A. 2005. "Instruments In Four: The Elements of Policy Design," In Eliadis, P, M. Hill and M. Howlett. (ed.).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ontreal,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alamon, Lester M. (ed.).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Salamon, Lester M. and M. Lund. 1989. "The Tools Approach: Basic Analytics," In L. Salamon. (ed.). *Beyond Privatization: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Schneider, A. and H. Ingram. 1997. *Policy Design for Democracy*.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Van Nispen, F. and A. Ringeling. 1998. "On Instruments and Instrumentality," In Peters, G. and F. van Nispen (ed.).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 Vedung, Evert. 1998. "Policy Instruments: Typologies and Theories," In Bemelmans-Videc, M., Ray C. Rist. and Evert Vedung (ed.).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NJ. USA.
- Weimer, D. and A. Vining. 1998.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Woodside, K. 1998. "The Acceptability and Visibility of Policy Instruments," In Peters, G. and

F. van Nispen (ed.). *Public Policy Instrument: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